

국가 발행 '한국형 CBDC' 첫 발... 비트코인과 공존할까

금융 이슈리포트

디지털화폐 CBDC

각국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 스테이블 코인, CBDC 추진 계기 가상화폐 소멸 가능성 '의견 분분'



각국의 중앙은행이 바뀐 지급결제 환경에 맞춰 디지털화폐 도입에 나서고 있다. /유투이미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한 가운데 각국의 중앙은행도 바뀐 지급결제 환경에 맞춰 디지털화폐 도입에 나서고 있다.

이미 중국에서는 디지털 위안화 발행을 위한 시범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한국은행이 지난 20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모의실험 사업자에 카카오 계열사인 그라운드X를 선정하면서 CBDC 사업의 첫 단계에 나섰다.

각국 금융당국의 이 같은 움직임 속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CBDC의 출현 속에서 공존할 수 있을지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가 발행하는 디지털화폐 CBDC

CBDC는 중앙은행을 뜻하는 '센트럴 뱅크(Central Bank)'와 '디지털 화폐(Digital Currency)'를 합친 용어다. 비트코인과 같이 가상화폐(가상자

산)가 민간에서 주도했다면, CBDC는 중앙은행이 실물 지폐를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만드는 전자화폐다.

CBDC는 일반적인 실물 지폐와는 달리 실물이 없다는 점을 제외하고 기존 법정화폐와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된다. 반면 민간 가상화폐는 탈중앙화된 탓에 발행량 조절이 불가능해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치가 크게 움직인다.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정화폐와 일대일 가치를 지니는 스테이블 코인이나 오키도 했지만 명확한 관리·감독 기관이 없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최근 미국 금융당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업체들이 충분한 준비금을 보유하지 못했을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집중 조사에 착수한 것으

로 전해졌다.

중국의 경우 이미 지난해부터 CBDC를 발행하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 5월 한은이 발표한 '해외 중앙은행 CBDC 추진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노르웨이 ▲동카리브 ▲스웨덴 ▲스위스 ▲싱가포르 ▲영국 ▲일본 ▲중국 ▲캐나다 ▲태국 ▲프랑스 ▲홍콩 ▲유럽중앙은행(ECB) 등 14개 중앙은행이 CBDC 타당성 검토를 위해 IT시스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도 이달 들어 CBDC 도입을 시사한 바 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최근 미국 하원에 출석해 "연준은 디지털 연구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거쳐 오는 9월 초 C

BDC 연구보고서를 공개할 것"이라며 "(서두르기보다)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CBDC가 생기면 비트코인은?

각국이 CBDC 도입에 열을 올리는 까닭은 중앙은행의 화폐 통제권이 위협받기 때문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가상화폐가 일상에서 영향력을 키우는 상황에서 기존 화폐 가치와 연동하는 스테이블 코인까지 등장해 기존 통화 시스템이 위협 받고 있어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다. 실제 세계 최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이 스테이블 코인 리브라 계획을 밝히자 각국 정부에서 개발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페이스북의 계획은 무산됐지만, 유사한 스테이블 코인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CBDC 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아직까지는 CBDC의 출현이 가상화폐의 소멸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먼저, 파월 의장은 디지털 달러가 발행될 경우 가상화폐의 쓸모가 없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파월 의장은 "미국의 디지털화폐가 생긴다면 스테이블코인도, 가상화폐도 필요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가 없는 점을 언급하며 "만약 스테이블코인이 주요 결제 수단이 된다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

는 "스테이블코인은 결제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가상화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가 화폐 기능뿐 아니라 가치 저장 수단이 부각된 만큼 CBDC와 공존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CBDC의 도입은 이제 막 시작됐기 때문에, 기존 가상화폐들과의 공존이 가능할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러나 비트코인이 최근에는 거래수단보다는 가치저장 수단으로 부각되면서 CBDC와의 공존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광혁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의 시점만을 놓고 본다면 비트코인 투자 이유 중 하나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헤지(위험회피) 수단으로 투자되면서 '디지털 금'으로 투자되고 있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비트코인이 금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라는 분석도 덧붙였다. 최 연구원은 "금은 화폐보다 먼저 내재적인 가치를 인정받은 실물이며, 여기에 국가들의 공인을 받는 과정에서 달러와 연동돼 지속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아왔다"며 "비트코인은 내재된 가치가 없다는 점, 가치를 보장하는 기관이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영석 기자 ysl@metroseoul.co.kr

우리은행, 디지털 리딩뱅크 입지 다진다

2021년 하반기 경영전략회의 속자생존 시대, 디지털 혁신 가속화

권광석 우리은행장은 지난 23일 열린 '2021년 하반기 경영전략회의'에서 "빠른 자만이 살아남는 속자생존(速者生存)의 시대를 맞아 디지털 혁신을 더욱 가속화해야 한다"며 "새롭게 맞이한 하반기에는 원팀(One-Team)을 이뤄 탄성과 속도를 더해 더 빠르고, 더 새롭게 전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경영전략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면 비대면 방식으로 열렸다.

이번 경영전략회의는 우리은행 자체 소통플랫폼인 '채널W'에 전 임직원이 참여해 '빠르게·새롭게·다함께' 런 우리(RUN WOORI)'를 주제로 개최됐다. 올 상반기 성과 리뷰와 함께 하반기 영업 추진 방향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인공지능과 딥러닝 기술



지난 23일 열린 우리은행 하반기 경영전략회의에서 권광석 행장이 강연하고 있다. /우리은행

을 활용한 가상의 AI 뱅커가 하반기 영업추진계획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올해 경영목표로 '디지털 퍼스트, 디지털 이니셔티브(Digital First, Digital Initiative)'로 정한 우리은행은 하반기 시행 예정인 ▲마이데이터, 대환대출 플랫폼 등 디지털 신사업 조기 선점 ▲자체 플랫폼 경쟁력 강화 ▲동종·이종산업과의 제휴 및 연계를 통한 고객

접점 확장 등 디지털 혁신 가속화와 실효성 있는 성과를 창출해 디지털 리딩 뱅크로서의 입지를 더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21일 발표된 우리은행의 올 상반기 순이익은 1조2793억원을 실현해 컨센서스(시장 전망치)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깜짝실적)를 기록한 바 있다. /이영석 기자

P2P 금융 불완전판매·부실대출 가능성 주의

금감원 Q&A

Q. 최근 지인으로부터 입지가 좋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P2P 부동산담보대출에 투자할 것을 권유받았습니다. 고수익이 보장될뿐 아니라 투자손실도 보전된다고 해 고민 중에 있습니다. 믿고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A. 핀테크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P2P 금융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P2P금융이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와 대출을 이용하는 차입자를 연결하는 중개서비스를 의미합니다. P2P금융은 금융기관을 매개로 진행됐던 기존의 대출과는 다르게 온라인 플랫폼에서 투자자와 차입자가 직접 자금을 주고

받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P2P금융 투자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P2P금융업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 다음달 26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달 27일 이후 미등록에 따른 폐업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P2P금융업자 홈페이지가 아닌 금융플랫폼을 통해 투자하는 경우 이는 금융플랫폼 자체 상품이 아닌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투자자 손실보전이나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을 제시하는 P2P금융업일수록 불완전판매, 부실대출의 취급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영석 기자

수출입은행, 미래 모빌리티에 1000억 출자

전기·수소차 등 K-뉴딜 연관 분야

한국수출입은행이 차세대 모빌리티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출자사업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수은 출자금은 전기·수소·자율주행차,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친환경

선박, 항공우주 등 K-뉴딜과 연관된 차세대 모빌리티 분야에 집중 투자된다. 최종적인 펀드 조성 규모는 4000억원 이상이다.

수은은 정부의 K-뉴딜 정책에 부응하고, 운용사의 차세대 모빌리티 분야 투자 극대화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를 제공한다. 운용사가 수은 출자금액의 1.5배 이상을 차세대 모빌리티 분야에 투자하고, 대신 이를 초과하여 투자할 경우 수은에 귀속되는 기준수익률의 일부를 운용사에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아울러 '수은 ESG 경영 로드맵'에 따라 운용사 선정시 ESG 요소를 평가 항목에 반영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

IBK기업銀 푸드트럭 소상공인에 재능기부

간판·BI 무료 제작

IBK기업은행이 'IBK희망디자인' 사업을 통해 푸드트럭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디자인을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IBK희망디자인'은 기업은행 직원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영세 소상공인들의 간판과 BI(Brand Identity)를 무료로 디자인·제작해주고 골목상권의 환경을 정비해주는 사회공헌 사업이다. 지난 16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엄청난

수제화거리, 구례 5일시장 등 약 260여 개 점포를 새롭게 탈바꿈했다.

올해는 코로나19상황의 장기화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푸드트럭 사업자를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기업은행은 창업 7년 미만의 푸드트럭 소상공인 4명을 선정하고, BI, 차량 도색·래핑, LED 간판, 매뉴얼 등을 디자인부터 시공까지 무상으로 지원한다. /나유리 기자